

(자치가 보장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

(태제로서의 자치)

자치라는 단어가 있죠. 사실 그것은 대학사회 안에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태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치를 거칠게나마 표현하자면, 나를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집단들의 차이가 발현되고, 다양한 사회적 실천들이 접합되면서 자율과 공존 속에서의 변화 가능한 관계를 이루어내는 것일 것입니다. 그동안 학원자치, 학생자치에 대한 주장은 지속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진정한 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자치의 개념은 대학사회 안에서만 순환할 수도 없고, 순환되어서도 안됩니다. 즉, 자치는 전사회적으로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죠.

(한국사회 비판)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사회를 바라봅시다. 한국사회 안에서 부르주아이고, 남성이고, 이성애자이고, 온전한 몸을 지닌 자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이 사회에서 배제당하고 소외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이중, 삼중의 배제를 경험합니다. 현재 한국은 IMF관리 체제 안에 있습니다. 모두들 어렵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여성은 결혼했다는 이유로, 미혼이라는 이유로, 혹은 임신했다는

이유로 누구보다 먼저 일자리를 잃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온전한 조건을 가지지 못한 이유로 **폭력**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속에서 여성에게는 여자라는 이유로 성적인 폭력이 더해집니다. 과연 확실적인 기준을 중심에 두고 그 이외의 것을 배제하는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의 자치가 가능한 적이 있었습니까?

(대학사회 비판)

흔히 진보적인 공간이라고 알려져 있는 대학사회는 사회에서 예외적인 공간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핑크플로이드의 '벽'**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학교는 하나의 공장으로, 학생들은 컨베이어 벨트에 놓인 하나의 물건으로 묘사됩니다. 그것은 영화적인 상상일 뿐이야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대학이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에 적합한 공산품을 찍어내는 공장인 것, 그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적합치 못한 것들은 대학 안에서 불량품으로 퇴출되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그 적합치 못한 것들 중에는 역시 **여성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봅시다. 남성들에게, 여성들에게 모두 버려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여성성은 시간과 공간이 달라지면 또다시 여성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즉 연세대학교를 다니는 여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엘리트로서의 당당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조하는 여성의 모습**으로서 봉사, 희생의 정신입니다. 결국 여성에게 요구되는

두가지 경계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다리기를 하던 그녀는 주변으로 밀려날 뿐입니다. 그 속에서 살아남는 그녀는 오직 여성성을 완전히 버린 여성이거나 이분화된 기준을 완벽하게 소화해낸 여성뿐입니다. 이러한 대학사회 안에서 있는 그대로의 여성 자신이 스스로를 온전히 드러내고 정치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과연 획일적인 기준을 그 중심에 두고 그 이외의 것을 배제하는 대학사회 안에서 그녀의 자치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잠시 쉬어주고...)

(여성주의적 질서를 중심으로)

(여성주의)

(크게) 우리는 획일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한쪽에는 우등한 가치를, 다른 한쪽에는 열등한 가치를 매기는 이 한국사회와 대학사회를 반대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여성주의를 주장합니다. 여성주의는 중심에서 주변으로 배제당하고 소외되었던 **여성들의 정치**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배제되어 왔던, 소외당해 왔던 주변의 가치를 재구성하는 것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여성주의는 획일화된 시선 속에서 가치를 평가받는 것, **차이가 차별이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즉, 일관된 가치 속에서 그 이외의 것들은 배제되는 정치를 반대합니다. 남성과 여성, 여성과 여성, 남성과 남성 사이에는 각각의 차이

가 있습니다. 차이는 차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차이의 인정을 전제로하며 사소한 것으로 치부되었던 우리의 일상, 여성들의 일상을 정치화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장하는 여성주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주의의 실현을 통해 여성들의 자치가, 배제되고 소외되는 이들의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주의 입장에서 학생사회에 대한 비판)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기반인 학생사회.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부터 여성주의적인 시각을 확산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총여학생회를 바라봅니다.

(쉬고)학생회에 중심을 둔 운동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90년대 초반부터 나왔었다고 기억합니다. 98년 현재는, 학생회 중심의 운동 위기라고도 하고, 학생회 운동의 페르다임이 끝났다라고도 합니다. 저는 이런 주장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학생회 집행부들, 더 열심히 해라. 니네가 학생사회 내에 세세한 일들 모두를 신경쓰지 않으니까 외면당하는 것 아니냐. 그러나 학생회 중심운동의 문제점이 학생회 집행부가 더욱더 열심히 하면, 밤잠 안자고 열심히 하면 해결될 수 있을 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확일적인 기준을 갖고, 그에 적합치 못한 것들은 배제하는 정치원리가 현재 학생회 질서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치가

보장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봅시다. 선거를 통해 다수의 표를 얻은 학생회는 우리가 **대중으로부터 인정받은 대표기구라고 자임**합니다. 그러나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자신의 운동성의 정당성이 인정받았다거나 자신이 대표로서의 상위권위와 권력을 가진다는 식의 사고는, 결코 **자치를 주장하는** 이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학생회를 통해 자치는 결코 보장될 수 없습니다.

한 번의 선거를 통해 1년 동안 기구로 고정되어버리는 학생회, 극소수의 **학생회 임원**들만이 구성하는 학생회, 원칙적으로 무조건 학생회의 일원이 되지만 실제로는 **학생회 집행부들에게 요구해야 하는** 학생회, 우리는 이것을 **기구로서의 학생회**라고 부르며 비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장하는 총여학생회는 "기구"가 아니라 "질서"로서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정치란 결코 단일할 수 없으며 어느 것이 다른 어느 것보다 우월한 것이거나 중심적일수 없습니다.

(크게)아무도, 아무도 개인의 권리와 정치적 의사를 대표하거나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문제의식**이란 그 누군가가 아래로 던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권리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총여학생회는 5천 여학우의 권리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이제 후

보단의 이미지와 말발이 아니라, 선본의 정책과 공약이 판단기준이 되어야합니다. 다양한 비판과 발언이 나오고 그렇게 동의와 지지를 얻어나가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여성문제 - 자치질서)

(여성문제는) 여성문제는 그것이 설득되고 확장될 수는 있을지언정 대표되거나 대리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운동을 하는 우리에게 5천 여학우라는 단일한 실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성들 내부에서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차이들을 분명히 인정하고 각자가 선 자리에서 발생하는 운동의 흐름들이 연대할 수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공대와 문대의 상황이 다르고 각각 고민하는 문제들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치입니다) (강조하며) 그것은 자치입니다. 차이가 존재하는 자치입니다. 여성주의적 자치는 나의 다름을 발현하고, 너의 다름을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질서를 일구어내는 것, 이것이 다양한 주체들의 교차된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기구가 아닌 질서) 여성들을 가로지르는 조건들이 다양하다고 해서 우리가 소통하고 연대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서로 소통과 연대를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질서로서의 참여학 생회입니다. (한번 더 크게) 참여학생회는 서로 다른 차이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기반 하에 각각의 조건아래서 일상을 정치화하는 다양한 흐름들이 서로 소통하고 연대하는 자치 질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이제 우리 유권자들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시다.

당신이 찍으려는 그 표는 당신의 대표자를 뽑는 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동의하는 정치에 대해 동의와 지지를 표현하는 것일 뿐이다, 우리는 우리가 얻은 표가 유권자의 권리찾기를 우리에게 위임한 표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유권자의 의무를 우리가 대신 짊어져야 하는 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를 통해서가 아닌, 바로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움직임, 바로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지반에 대한 일상의 정치성을 드러내는 것이며 우리 스스로 지반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여성주의적 자치질서'의 존재조건이자 바로 '여성행동'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가 서 있는 현실에서, 다르게 살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지루한 세상에 대한 낯선 시선을 통해 변화의 가능성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열린 질서를 상상합니다. 이 모든 것
을 함께하는 여/성/행/동으로 이루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